

## 언약을 지키려는 몸부림

찬양해요

찬송가 200장

기도해요

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

말씀을 읽어요

열왕기하 23:16-24

16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17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나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벨엘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18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19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벨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20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1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니 23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4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

말씀 이해하기

오늘 말씀에서는 요시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 두지 않고 개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요시야는 벨엘의 산당들을 파괴할 때 무덤의 뼈를 이용해 제단을 더럽힘으로써 다시는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그러나 요시야는 300년 전 자신의 등장을 예언한 '하나님의 사람'의 뼈가 있는 묘실은 부수지 않았습니다. 그 '하나님의 사람'은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해 제단 위에서 우상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, 사람의 뼈를 그 위에 불사르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. 요시야는 그의 뼈만은 온전히 보존해서,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알렸습니다. 또한 역대 왕들을 통틀어 가장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므로,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던 일을 온 백성이 기념하게 했습니다.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

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서는 길은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.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.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.

좀 더  
생각해  
보기

1. 요시아가 산당의 무덤과 뼈들을 불사를 때 파괴하지 않은 묘실은 누구의 것입니까(17-18)?

▶ 왕께서 벤엘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의 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

2. 요시아가 백성에게 지키게 한 절기는 무엇입니까(21절)?

▶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  
을 지키라

3.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(24절)?

▶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의 을 이루려 함이라

4.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.

5.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훈련해야 할 경건 생활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나눠 봅시다.

기도해요

하나님,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. 이를 위해 가정예배와 큐티를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